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1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1월 31일(금)

올해는 내실(內實)을 보다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신년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가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萬福)이 깃들시기 바라며, 우리 청송신문(靑松沈門)의 힘찬 번영(繁榮)을 기원(祈願)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대중회는 지·파종회(地·派宗會)와 종친(宗親)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聲援)에 힘입어 크고 작은 숙원사업(宿願事業)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본향(本鄉) 청송에서 개최한 “청송심씨한마음대회”를 심문 800년 역사상 유래 없는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청송신문의 근본정신인 효(孝)와 우애(友愛)를 바탕으로 우리 일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원봉사와 다양한 재능 기부는 물론, 대회 경비도 십시일반(十匙一飯) 마련하여 이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한마음대회를 통해 일가 간 끈끈한 정을 느끼고 나누며 심문의 정체성(正體性)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뿌리의식과 심문(沈門)의 자긍심(自矜心)을 심어주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전통이 후대(後代)에도 굳건히 계승되어 우리 문중의 미래가 더한층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영재양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장학재단(獎學財團)을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장학사업이 실시된 이래 2018년 도까지는 장학생을 지·파종회를 통해 수십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조금씩 나눠주고 1회 단발성으로 끝냈으나,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英才) 청소년 학생을 소수정예로 선발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학재원을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심문의 발전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그동안 장학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지·파종회와 독지가(篤志家)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 청장년 등 젊은 세대의 종사(宗事)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 증보(宗報)를 지난해

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월제로 발간되고 있는 종이 증보는 발간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즉각적인 뉴스 전달 등 실시간 정보 전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모바일 증보는 휴대폰과 PC를 통해 대중회를 비롯한 지파종회와 일가들의 소식, 각종 행사 등 많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젊은 층에 선호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종사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증보와 대중회 홈페이지가 합쳐져 운용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족보 열람, 현조록, 선조사적, 종회소식 등 수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독할 수 있는 모바일 증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내실(內實)을 보다 튼튼히 다져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종재관리(宗財管理)에 충실하여 조상숭배와 일가 간 화합에 더욱 힘쓰고, 조상이 물려주신 위토를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인인 총유물(總有物)을 온건히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시조할아버지를 비롯한 5처 묘소와 2단소의 춘·추 시제(春·秋 時祭)에 많이 참가(參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13상신(十三相臣)을 비롯한 선조님들의 유물·유적지를 현장 답사하여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선조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심문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심씨는 3왕후 4부마 13정승을 배출한 조선의 10대 명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13정승의 묘소 중 일부가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아예 방치되고 있어 묘하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정승을 지내신 선조님의 명망이 손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명문가로서의 위상(位相)이 실추되고 있는 실상(實狀)으로 후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정승의 묘소 중 영의정을 지내신 순택 선조님의 묘소(평택)와 수현 선조님의 묘소(파주) 등 관리가 미흡한 묘역은 보완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고, 선조의 새로운 유물·유적 발굴을 위한 조사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문(沈門)의 더 큰 단합과 발전을 위해 지역종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가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종사(宗社)를 논의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종회가 전국적으로 약 80여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활성화 되어 있는 종회는 약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중이 발전하려면 먼저 대중회와 전국의 지·파종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지파종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파종회가 중심이 되어 같은 관내에 소재한 여러 파종회와 청·장년회 등 조직들을 모두 규합하여 전체를 하나의 지역종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지·파종회에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회비 1만원 후원 회원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후학(後學)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조상의 묘역 및 종재관리, 일가 간 단합대회 개최 등 대중회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예산과 기금 등 재정(財政)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종래에는 필요한 기금을 일부 사업가와 지·파종회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충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양(止揚)하고 가능한 많은 일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연회비 1만원 후원 회원제” 도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중회의 중요사업과 지역종회 운용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원모집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도 안내문이나 홍보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 회원에게는 종보 구독권과 종사수첩, 뺏지 등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우리 문중의 많은 일가들이 조상님들의 음덕(蔭德)으로 정치, 재계, 교육, 언론, 예술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어 청송심문의 명망과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일가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속에 우리 심문(沈門)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고, 일가 여러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萬事亨通)하여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庚子 元朝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大平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1)

기록은 역사가 된다

노송 할아버지와 《효전산고(孝田散稿)》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애야, 너는 지금 일기(日記)를 잘 쓰고 있지?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인수부윤공 과천공과 21세로 노송(魯崇) 할아버지가 계셨어. 조선 후기인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셔서 1837년(헌종 3)에 돌아가셨으니 75세를 사셨어. 그 당시로는 매우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어. 어릴 때에는 몸이 매우 약하여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스스로 몸조심을 하여 점점 건강해 지셨대. 자는 태등(泰登), 호는 몽산거사(夢山居士) 또는 효전(孝田)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셔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은 물론 당시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책이라 할 수 있는 ‘사대기서(四大奇書)’까지도 다 읽으셨대.

그런 뒤에는 직접 글을 쓰셔서, 38책에 달하는 방대한 문집 《효전산고(孝田散稿)》와 정치론을 논한 편지인 《정변록(定辨錄)》, 역대 야사를 필사한 총서 《대동괘림(大東稗林)》 136책, 일기 글이라 할 수 있는 《자저실기(自著實紀)》 등 여러 책을 남기셨어. 특히 《효전산고》에는 당시 사대부들이 꺼려했던 음식 맛에 대한 기록도 들어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맛 칼럼니스트라 할 만 하였어. 이로 보면 노송 할아버지는 수필가이자 정치와 문화 평론가였으며 스토리텔링 작가이기도 하셨던 거야.

노송 할아버지의 글은 돌레에 일어나는 일과 풍속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 그러니까 딱딱한 형식의 글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감정을 넣어 부드럽게 쓰셨던 거야.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기도 하였지만 노송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격식만 따진다고 좋은 글이 되지는 않아. 쓰는 이가 감정을 모두 집어넣어야 하고, 읽는 이가 쉽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그 뒤에도 계속 노송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글 쓰기 생각에 충실하셨어.

노송 할아버지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과 제주목사(濟州牧師)를 역임한 통훈대부(通訓大夫) 낙수(樂洙) 할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 낙수 할아버지는 노론 시파로 벽파 공격의 선봉에 섰을 만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계셨어.

노송 할아버지는 1783~1784년을 전후로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익힌 끝에 1790년(정조 14) 경술증광사마시(庚戌增廣司馬試)에 진사 2등으로 합격하셔서 벼슬자리에 나아가셨어.

노송 할아버지의 책에는 여러 이야기가 실려 있어.

어느 날 비가 내리자 한 관리가 말했어.

“낙숫물 소리가 처량합니다.”

그러자 노송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나의 부친 함자(銜字)가 ‘낙(樂) 자, 수(洙) 자’이시오. 비록 그대가 말하는 ‘낙(落)과 수(水)’는 아니라 할지라도 듣기 거북하오.”

“아이고, 몰랐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또 ‘취우표풍(驟雨飄風)’이라는 글도 남기셨는데 이 글에서는 권력의 허망함을 지적하고 유유자적할 것을 다짐하신 것으로 보여. ‘취우표풍’은 1776년 정조(正祖)가 보위에 오르자 권력을 휘두르다가 순식간에 몰락한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을 다룬 글이야.

이 글에 따르면 29세의 홍국영은 도승지(都承旨)와 훈련대장(訓練大將)에 금위대장(禁衛大將)까지 겸직했어.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거머쥔 거야. 그래서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매일 대궐에서 생활했다고 해. 어쩌다 집에 가는 날에는 홍국영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거리에 늘어서고 집안을 가득 메웠어.

홍국영은 속으로 좋아하며 물었어.

“저 사람들은 어쩌서 소낙비(驟雨)처럼 몰려오는 겐가?”

그러자 한 수행무사가 대답했어.

“나리께서 회오리바람(飄風)처럼 가시기 때 문입지요.”

“뭘라? 나는 회오리바람이고 저들은 소낙비라! 허 그것 참 대구(對句)가 잘 맞아지는군!”

홍국영은 아부 잘 하는 그 무사의 계급을 더 높여주었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홍국영은 3년 뒤에 실각했어. 그래도 정조는 홍국영에게 지금의 연세대학교 뒤편 홍보동(紅寶洞)에 집을 하사했어.

홍국영은 한겨울에 숯불을 피워가며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었어. 그리고는 궁궐 숙위소(宿衛所)에 보관했던 물건을 새집으로 옮겨올 때 장정 30~40명을 동원하여 10여 일을 날랐어. 5만 냥의 돈에 패도(佩刀)가 3천 자루, 칠부채만 1만 자루가 넘었다고 해.

그러나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권력을 잃어버리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며 안절부절 못했어. 혼잣말로 “아무개는 죽여야 하고, 아무개는 주리를 틀어야 한다.”고 중얼댔어.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신하들로부터 다시 탄핵을 받아 좋은 집에서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강릉으로 쫓겨 갔어.

서울서 편지가 오면 반가워 뜯었다가 이내 찢고 돌아누워 엉엉 울었어. 다시 돌아오라는 편지가 아니고 비난하는 편지였기 때문이었어. 그리하여 홍국영은 길 가는 무지렁이 백성을 아무나 붙들고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읊어대는 것을 그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어. 듣던 사람이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면 손으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벽에 박아 대다가 그만 강릉으로 쫓겨간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어. 그리

고는 달구지에 실려 와 경기도 고양 땅에 묻혔는데, 노송 할아버지는 이 일을 적고 나서 그의 무덤은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그 뒤, 노송 할아버지가 남기신 ‘취우표풍(驟雨飄風)’은 홍국영의 일생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허망함을 상징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

지금도 노송 할아버지가 쓰신 ‘누원(淚原)’을 포함 여러 제목의 글이 오늘날 《눈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나와서 널리 읽히고 있어.

또한 노인의 다섯 가지 형벌(五刑)과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에 대해 논한 노송 할아버지의 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고.

그래, 노송 할아버지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구나.



노송 할아버지의 《효전산고》



노송 할아버지의 5대조 정기 할아버지 묘비 (사진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제공)

심대평 대종회장 일행,

평택 진위면 소재 청령공 영의정 심순택 묘소 봉심(奉審)
(1824~1906) - 묘소를 살피고 점검함 -



심순택 초상화

1. 회장 일행의 진위(振威) 방문 : 지난 12월 19일(목), 대평 대종회장과 언태 총무이사, 갑택 문화 이사, 운영위원장 상익, 증보편집위원 재석 그리고 사복시정공 회장 익섭, 총무 규섭 등이 청령공 심순택 선조의 묘소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현황을 살폈다.

2. 영의정 묘소의 현재 상황 : 묘소가 위치한 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고, 묘소가 방치되고 있다.

- 1) 자손들의 분쟁으로, 50년 간 고택을 지키던 고손자 며느리(양영숙, 83세)은 동네 허름한 집 문간방을 빌려 거주하고 있다. 인생무상, 세월무상이다.
- 2) 고손자 며느리가 50년 간 살았던 고택이 넘어가고, 그 자리엔 타성의 집이 차지하고 있다.



송덕비가 있는 진위향교 앞에서

3. 시급한 문제들

직계 후손과 연락해서 별초와 사초 등 묘소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묘소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적어도 시급히 향토유적으로 등재해야 한다.



심순택 묘소 참배

4. 심순택은?

1824년에 태어난 청령공의 간략한 계보는 '온(안효공) → 연원 → 인겸 → 광세 → 택현 → 풍지 → 순택 → 상진'으로 이어진다. 조선 최초의 '공작(公爵)' 칭호를 수여받은 청령공은, 27세에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51세), 이조판서(57세), 영의정(62세)을 역임하였다. 청령공은 딸만 셋, 양자 상진은 생부가 청령공의 동생인 이택이다.

5. 청령공이 진위면 봉남리에 정착한 계기

손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그 위패를 현 묘소에서 가까운 '만기사'에 봉안하고 위령제를 지낸 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진위를 비롯해 충청도 일대에 토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6. 심순택 행적

- 흥문관, 예조, 이조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영의정까지 올랐던 것은 당대 인정받는 학자였으며 국왕의 신임이 컸다.
- 격동의 시기에 그는 '東道西器論'적인 입장에 있었다.
- 갑신정변 때는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급진 개화파의 개혁에 반대해 청군의 출병을 요청했다.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영의정으로서 농민군을 막는데 노력했지만 한계를 느끼자 청나라에 원군 파병을 요청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 을미사변(1895)과 아관파천(1896) 후에도 의정부의정(議政)으로서 대한제국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근왕주의(勤王主義)적 성격이 강해 근대적인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윤용선, 조병식 등과 함께 독립협회로부터 규탄 받아 관직에서 해임됐으나 곧 복직돼 을사조약(1905) 때까지 관직생활을 했다.
- 고종의 두터운 신임과 왕실에 대한 충성으로 1906년 청녕공(靑寧公)에 봉해졌다.
- 을사조약 후 조병세 등이 자결하자 심순택도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자 했으나, 왕의 만류로 시행하지 못하고(신도비 : 경은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卿勿死勿死)) 집으로 돌아와 1906년 83세로 서거했다.

7. 관심 있는 종인들의 묘소 참배와 송덕비 방문을 권한다

- 1) 묘소 위치 : 진위면 봉남리 동부마을. '진위면 사무소' 뒤 우측 산정
- 2) 송덕비 위치 :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49

'진위향교' 앞 비각 내

3) 청녕공 사후 정경부인 능성 구씨가 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지다!

(1) 금릉학원 설립 :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는 공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청령공이 별세하자 정경부인 능성구씨는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공의 묘소를 마련하고, 精舍를 지어 본격적으로 거주하였다. 정경부인은 청령공이 남긴 유산으로 구씨학원을 세우고 이것이 금릉(金陵)학원으로 변했으며, 이후 진위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이후 학원 터에 고등공민학교가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진위중고등학교로 합해 진 듯하다.

(2) 빈민구제와 무이자 곡식 대여, 연말에 쌀과 반찬 공급 : 정경부인은 청령공의 유산을 이웃을 위해 썼다. 먼저 가난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루 시혜를 베풀었으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조합을 만들어 근면을 권장하고 춘궁기에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다. 연말에는 쌀과 반찬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필자 : 심재석(증보편집위원)



송덕비 탁본 중(2018년)



4세조비 정경부인 청주송씨 묘역 재정비

청주종회는 청주시 서원구 대봉로 산 8-1에 위치한 청송심씨 4세조비 정경부인 청주송씨 묘역 주변 곡담설치 등 정화작업을 12월31일 완료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송씨 묘역을 청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신청하여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심의결과 향토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가결되어 청주시 행정절차 완료 후 2020년 5월 초 향토유적문화재로 지정 예정이다.



재 정비된 청주송씨 묘소 곡담

지산상공 止山相公 영의정 沈壽賢(심수현, 1663~1736)

고난 속에서 대학자 심대운이 출현하다



沈載錫 (문학박사)

I. 영의정 심수현! 왜 잊혀지는가?

1. 야당인 소론계 영의정 심수현은 : 영조대 초반에 영의정을 지냈다. 청송심문은 대체로 여당인 노론계였으나, 지산가문은 소론계였다. 1755년 을해년, 이해에 일어난 '나주과서사건'은 영조에게 소론잔여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를 주었다. 모역 사건이 해결되자, 영조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시행하였으니 '討逆慶科'였다. 역적을 토벌하였으니 이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를 시행한 것이다.

2. '토역경과' 시험에서 심정연(沈鼎衍)의 답안지가 을해옥사를 일으키다 : 효창공계 심희수 후손으로 춘천에 살고 있던 심정연은, 영조를 비난하는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이에 연루된 지산상공의 둘째 아들 심악은 영조의 단 한 번의 친국을 받고 처형되었고, 폐족(廢族)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연유로 청송 심문이 배출한 13정승 가운데 지산상공 심수현은 바야흐로 잊혀지고 있는 중이다.



심수현 묘(파주 광탄면)

II. 止山相公 심수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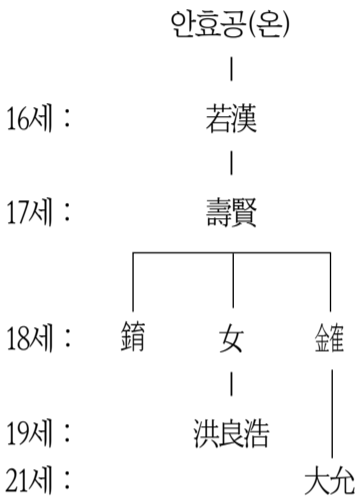
- ① 안효공 - 온양공 - 응교공(광세)계이다.
- ② 당색은 소론계이다. 조선후기 정계를 주도한 정파는 노론이나, 심수현은 소론계로서 영조의 탕평책에 의해 정승이 되었다.
- ③ 큰 아들 심욱(沈鎭)은 영조의 우대를 받은 산림으로 『저촌유고(樛村遺稿)』를 남겼으며, 양명학의 대가인 霞谷 鄭齊斗의 수제자였다.
- ④ 둘째 아들 심악(沈鎡)은 을해옥사(1775)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이 때문에 가세가 크게 기울어졌다.
- ⑤ 가문이 몰락하자 후손들이 안성에 우거하며 지냈으나, 고손자 沈大允이 출현하여 대학자가 되었다. 근래 『沈大允全集』이 출간되어, 다산 정약용이나 해강 최한기에 버금가는 실천적 대실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 ⑥ 외손자 洪良浩는 대제학을 역임한 대학자다.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자, 외가인 심수현 집에서 자

랐다. 양명학의 대가인 외삼촌 심욱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여,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다.

⑦ 근래 심수현 가문의 古文書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일괄 수집하였다. 장차 심화된 연구가 요청된다.

III. 심수현의 간략 계보와 연보

1. 간략 계보



2. 간략 연보

서기	나이	주요 관직
1663(현종 4)	1	출생
1704(숙종 30)	42	과거합격
1706(숙종 32)	44	세자시강원說書(정7품) (전북 완주)高山현감(정6품)
1708(숙종 34)	46	강원도 암행어사
1714(숙종 40)	52	충청도 관찰사(정2품)
1719(숙종 45)	57	(전북) 무주도호부사(정3품) 경상좌도 均田使
1721(경종 1)	59	강화유수(정2품)
1723(경종 3)	61	대사헌(이조참판(정2품)
1724(영조 즉위)	62	병조판서(정2품)
1727(영조 3)	65	우의정 / (청) 陳奏正使
1733(영조 9)	71	영의정
1736(영조 12)	74	서거(10.28)

IV. 영조대 초반 탕평책과 少論계 정승 심수현

1. 늦은 급제와 지방관 부임 (참고 : 『高山誌』 (완주문화원), 『茂朱郡先生案』 (무주문화원) 발행) : 지산상공 심수현은 1704년 (숙종 30년)에 실시된 <春塘臺試>에서 8인 중 4등으로 합격하였다. 42세의 늦은 나이였다. 과거 합격 이전의 생활은 어떠했



<교지- 무주도호부사 심수현>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035255. '사진 무단 이용 금지'- 필요 시 서울역사박물관의 허락이 필요함. 이하 유물번호가 기재된 것은 동일함)

는지 기록이 없어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급제 후 세자시강원 說書(정7)를 거쳐 司書(정6)로서 전주 부근 高山현감이



<유서-강화유수 심수현>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035300)

외진 곳으로, 이곳 현감은 蔭官이 부임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과거급제자 심수현이 부임하였으니 아마 대단한 입담거리였을 것이다. 아쉽게도 고산에서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심수현은 다음해 肅文閣 修撰(정6)으로 영전하였다.

57세 되던 1719년, 무주도호부사가 되어 부임하였는데, 이때 가족을 많이 거느리고 간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備邊司謄錄』1719/10/16). 59세 되던 해,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 강화유수가 되었다. 여기서 회감연도 열었고, 큰 아들 沈鎭이 이곳의 명사 鄭齊斗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때 받은 왕의 유서(諭書)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어서, 필자가 촬영해 왔다. 몇 구절만 보면 이렇다.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았으니 사체와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형세를 살펴 군사를 출동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일은 한결같이 常事를 따르도록... 密符를 주노니... 비상한 命이 있을 경우에는 부절을 합쳐 보아 틀림이 없는 연후에 명을 시행하라.”

지산상공은 이 밖에도 강원도 암행어사, 양양부사, 의주부윤, 동래부사와 충청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가는 곳마다 善政碑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실물은 없다.

2. 경상좌도 均田使로서 宗事(宗事)에 힘쓰다 : 均田사로 파견된 심수현은 彥陽 지역의 量田이 이상 없다고 보고하였다(『숙종실록』 46/2/5). 그리고 청송 심문의 시조묘가 있는 청송 지역에 들러 보광산 토지대장 외에 田답도 등재하고, 戶長으로 하여 金 收稅케 하여 祭需에 보태게 하였다(『경진보』 首卷 100쪽). 경상좌도 지역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지산상공은 내친 김에 시조묘소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여 宗財를 확고히 하고 시조 묘소의 제향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3. 연행사(燕行使)가 되어 : 영조 3년(1727), 우의정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청나라에 <謝恩兼陳奏使>로 가게 되었다. 이번 사행은 실은 '변무사(辨誣使)'였다. 청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 ① 청의 조선 모욕 : 심양의 책문에서 조선의 상인들이 銀子를 빌리는 일이 많았다. 이를 갚으라고 봉황성의 將이 불손하게 글을 보냈고, 조정은 못 갚는다고 회답하였다. 이에 청 조정은 6만 냥을 탕감해 주겠다고, 景宗의 이름을 지적하며 모욕했다. 청이 조선의 前王 이름을 부르는 문제와 은자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다.
- ② 연경에서의 스트레스 : 심수현은 銀子를 갚지 않

은 일(逋欠)에 대한 奏文을 가지고 떠났다. 연경에서 13王에게 인삼을 바치며 일을 주선했으나 실패하였고,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심육, <先考領議政府君遺事> 『樗村遺稿』).

③ 귀국하여 '애교 석인 처벌'을 받다. 심수현 개인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 변무사로서의 임무에 실패하자 대간들이 과직하고 잡아들이라고 공격하였다. 영조는 "사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대간의 공격에 '문외출송하고 延安에 잠시 유배'하였다. 100일 쯤 지나 방면하였다(『英祖實錄』 5/4/30).

V. 처음 공개하는 '심수현 묘지명'

1. 묘지명의 발견 : 고종사촌인 李德壽(1673~1744)가 찬술한 심수현 묘지명(墓誌銘)을 고손자 심대림이 등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박물관에 있다. 지산의 묘지명 22매는 무덤 속에 넣었다. 경진보 심수현 항목엔, '번매(燔埋)'라고 되어있다. 아마도 심수현의 묘를 개장한다면 여기 제시하는 묘지명과 같은 '22매의 묘지명'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한다. 구운 도자기 모양이다.

2. 묘지명의 내용 : 초반부는 대체적으로 심수현이 암행어사나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 政令을 엄하게 내리고 백성들을 위해 善政을 베풀었다고 하였다. 중반부 이후에서는 중앙정계의 일을 언급하며 소론계 입장을 반영했다. 노론측에서 왕세제(영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투소(投疏)'라고 알잡아 표현했다(沈揆植, 고대석사논문, 55쪽).



<심수현 묘지명>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035935

VI. 심수현의 아들 심육·심악과 고손자 심대운, 외손자 홍양호

1. 강화학파의 거두 - 심육(沈鑄, 1685~1753)

① 山林 심육은 : 양명학자로 그 위상이 높고, 영조가 특별히 '山林'으로 추앙하였다. 대사헌 등 다수의 관직을 내렸으나 대부분 취임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산림' 학자였다. 그는 양명학의 태두 하곡 정제두의 수제자로 '存養과 省察'을 강조했다. 부친 사망 이후, 31세 때 안성에 은거하여 書堂을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② 영조가 쓴 심육 사제문(賜祭文) : 영조는 심육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빨리 보고 치 않은 경기감사를 처벌하고, 예조 정랑을 보내 祭를 지냈다. 영조는 이 祭文에서 "심육은 山林으로 마음이 충성스럽고 질박



심육 영조賜祭文

하여 내가 동궁시절부터 알았다. 경오년 온천 행사에는 심육을 가까이 불러 보았다."고 추억했다.

2. 을해옥사(1755)때 억울하게 처형된 심악(沈錫, 1702~1755)

① 심악은? : 1731년(영조 7년)에 庭試에서 선발된 8인 중 1등으로 합격하였다. 부친 심수현을 이어 과거에 합격했으니 영광이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심악 과거 합격 증서인 紅牌(紅牌)가 있다.



<심악 紅牌 교지>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036205

② 을해옥사와 심악 : 나주괘서사건(1755)이 해결되고 실시된 과거에서 심정연(沈鼎衍)이 영조와 조정 대신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쓴 답지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조는 이 사건도 무신여당(戊申餘黨)의 소행이라 하여



<심악 간찰>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035870

유수원, 심악, 심정연 등이 처형되었다. 심악은 "유수원의 역적질을 왕을 위한 충성이라고 했다(沈錫 結案)『推案及鞫案乙亥年5月』 면서 모르고 역적을 비호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당고개에서 능지처참 당하였다. 이 을해옥사로 수많은 소론계 인사들이 제거되면서 영조의 탕평 정치는 막을 내리고 장차 노론 일색의 정치가 펼쳐진다.

3. 다산 정약용에 비견되는 실학자 白雲 심대운(沈大允, 1806~1872)

심수현의 고손자인 심대운은 39세 때에 한양을 떠날 정도로 경제적 처지가 매우 곤란하여 1845년에 노모와 두 동생과 함께 안성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곳은 심육이 1715년에 안성으로 이거하여 터전을 닦아 놓은 인연이 있었다. 그는 안성의 白雲山에서 '白雲'이라는 이름으로 自號하였다. 안성 읍내의 東里에서도 살았기에 '東邱子'라고도 불렸다.



<대동여지도>의 안성 白雲山 - 심대운의 호(號)는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임.

심대운은 자신의 사상을 압축한 《福利全書》에서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목석과 다름이 없다"며 욕망을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강조했다. 또 남과 더불어 이익을 취하는 '與人同利'를 최고의 도덕 가치로 설정하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펼쳤다.

4. 외손자 - 대제학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심수현의 외손자 耳溪 홍양호는 홍문관·예문관 兩館의 대제학을 겸임한 바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北京을 다녀왔다. 홍양호는 13세 때 부모를 여의고 외조부인 심수현의 집에서 양육되었는데, 특히 외삼촌인 심육의 지도가 컸다. "그는 일찍이 영조로부터 '博學'으로 지칭되었고, 정조로부터 문장가로 인정

받았다. 관직 생활을 통해 利用厚生과 國計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다(진재교, 『홍양호문학연구』 46쪽)."

VII. 눈물겨운 조상 묘 이장(반장, 返葬) 기록 : 심대운의 『남정록(南征錄)』(손혜리, <심대운의 『남정록』 연구> 262~296쪽 참조)



대제학 홍양호 (심수현 외손자)

① 심대운 필생의 소원 : 심대운은 부친 사후, 광양에 묻혀있는 증조모·조부·대고모의 유골을 안성으로 모시는 것이 평생의 숙원이었다. 을해옥사로 유배가서 죽은 조상들이다.

② 6개월에 걸친 '광양 → 안성'으로의 조상 묘 이장 : 안성에서 광양은 1개월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으나, 동행했던 庶叔이 역병에 걸려 6개월이나 소요되었다. 1842년 2월, 13명으로 구성된 반장 일행은 광양(2.22)→섬진강→남원(2.24)→전주(2.25)→금강(2.28)→안성(4.1)에 도착하였다. 경비도 많이 들고 고통도 컸으나 필생의 숙원을 6개월에 걸쳐(1841.10~1842.4) 완수하였다. 기막힌 사연이다.

VIII. 심수현과 후손이 역사에 남긴 여운

지산상공 심수현은 늦은 나이에 급제하여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다. 노년에 영의정이 되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국왕 영조를 보좌했으며 청렴하게 살았고 "언제나 낙천적이었다(趙裕壽, 『後溪集』 권5). 그는 청나라 달력 제작법을 배워오게 하였고, 한양·통진·시흥·안성 등지의 거처를 오가며 살았다. 이로 인해 아들과 후손들이 안성을 중심으로 세거하여, 음성·충주·괴산·죽산 등지에 산재하고 있다.

지산의 큰 아들 저촌(樗村) 심육은 양명학자로 그 위상이 높고, 영조가 특별히 '山林'으로 추앙하였다. 둘째 아들 심악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직에 이르렀으나, 을해옥사(1755)에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이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지산의 외손자 이계(耳溪) 홍양호는 어려서 외조부 덕인 심수현 가문에서 자랐으며, 외삼촌 심육의 영향으로 대학자가 되었다. 白雲 심대운은 지산상공의 고손자이고 처형당한 심악의 증손자이다. 安城에 정착한 그는 생활 수단으로 공방과 약방을 운영하면서, 정약용에 버금가는 저술을 통해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였고, 위대한 학자로 기록되는 중이다.



심수현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근처(2020.1.22). 근처 당왕동에 3세조 청화부원군(沈龍) 묘역이 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홈페이지 개설

청송심문의 전통적인 가치인 인재육성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의 홈페이지가 2020년 1월 15일 개설되었습니다. 국가사회 발전에 기수가 되고栋梁지재(棟梁之材)가 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cshim.org>
청심장학회

○ 청심장학회 기부금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계좌 : 농협 301-0256-8973-11

2020년도 (재)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1. 지원자격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출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잠재성이 유망한 자
- 고등학교1년생 : 중·고등학교 성적우수자
- 대학(원)생 : 전체 학점 3.8/4.5점 이상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표창 등 실적우수자(입학성적 우수자 포함)
- 특기생 및 일반인 : 국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또는 유망주

2. 선발인원 : 10명 내외

3. 선발대상 : 고등학교1년생, 대학(원)생, 일반인

4. 선발방법 :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

5. 수혜금액 : 3백만원~5백만원 (고등학교1년생은 고2, 고3 총2회 장학금 지급)

6. 지원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 ② 추천서

- ③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고1년생은 중학교도 제출)
- ④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 ⑤ 서약서
- ⑥ 학교재학증명서
- ⑦ 가족관계 증명서
- ⑧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⑨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 신청 양식은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7. 제출처 :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8. 제출기간 : 2020년 2월 10일~ 2월 20일까지

9. 면접일자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별도 통보)

10. 장학금 수여 : 2020년 4월 중

대종회 임원 명단

일가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家內에 萬福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문 : 宜斗 相股 載鴻 宇永 勳鍾 完求 贊求 行鎮 正輔 相喆 相均 載金

명예회장 : 甲輔

회 장 : 大平

부 회장 : 相國 東燮 相賢 相祐 大燮 晶求 茂燮 忠澤 錫文 揆華 長植 能光 玄根 在奎 載德

감 사 : 達勳 鍾赫 忠晉

집 행 부 : 彥泰(총무이사) 甲澤(문화이사) 揆政(재무이사)

유 사 : 相福 吉澤 光燮 正秀 相國 哲裕 相昊

이 사(가나다순)

서 울 : 光燮 光燮 技燮 奉燮 三圭 相慶 相瑞 相祚 相學 相烈 相翰 英輔 玉仁 完圭 勇鎮 佑燮 愚龍 雄燮 元植 殷植 翊燮 寅燮 載求 載德 載奉 在臣 載岸 載烈 在雄 載崙 載正 正燮

種福 俊輔 昌輔 春輔 春植 亨求

경 기 : 康燮 光輔 揆一 極澤 文錫 伯綱 相大 相英 相雨 上銀 相贊 相弘 錫希 錫鎔 洵燮 洋燮 彥村 榮燮 英燮 完輔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鍾洪 昌輔 炯燮 玄周 弘燮 興周

부 산 : 萬仁 成燮 載德 載榮

대 전 : 揆善 奉燮 聖輔 逸燮 載運 載重 喆用

인 천 : 江水 揆成 大植 相圭 相振 宜杓 載錫 載善 駿求 炯茂

대 구 : 相培 成澤 楨燮 賢錫 護雄 勳

광 주 : 明燮 珉燮 愚慶 在均 在益 珪 鍾德 駿燮 鎮植

울 산 : 隆求 英求

강 원 : 東燮 東出 萬澤 尙求 相烈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在澤 載鉉 春燮 夏燮

경 남 : 揆實 明燮 載廣 在模 載華 點輔

경 북 : 相國 相東 相完 相燾 宜石 載根 在叔 載玉 載浩 載洪 弘燮

진 남 : 日燮 貞燮 正植 行燮

진 북 : 大燮 斗燮 相根 尙道 相榮 相哲 相獻 秀永 秀一 載政 載學 鍾根 鍾默 周燮

충 남 : 甲澤 永鍾 完澤 允澤 載令 仲根 仲燮 漢植 行根 泓植

충 북 : 光輔 相榮 相鶴 成來 良燮 殷燮 仁輔 載福 載榮 載鈺 載赫

해 외 : 相昱 (캐나다)

2020년 1월 1일
청송심씨대종회 임원진 일동

2020 경자년(庚子年) 춘계 향사일 안내

大宗會 主管 享祀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소
시조(始祖)	文林郎公(諱:洪孚)	04.05	한 식	일	경상북도 청송군 덕리 산33, 보광사
	中臺山墓所	04.05	한 식	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산1, 중대산
二	閣門祇候公(諱:淵)	04.03	03.11	금	전라북도 익산시 함녕로634, 남당산
三	青華府院君(諱:龍)	04.06	03.14	월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1224-26
	青華府院君 配位 金氏	04.06	03.14	월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길148-14
四	青城伯(諱:德符)	04.07	03.15	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青城伯 配位 淸州宋氏	04.09	03.17	목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 계룡리슈빌 202동104호
	岳隱公(諱:元符)	04.17	03.25	금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景義齋)

朝鮮王陵 享祀

王后	昭憲王后(세종비)제4대	04.28	양력 고정	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901-3, 영릉(英陵)
	仁順王后(명종비)제13대	04.06	03.14	월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727, 강릉(康陵)
	端懿王后(경종비)제20대	03.08	양력 고정	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동구릉·혜릉(惠陵)
	淑容沈氏	04.19	4월 셋째	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6 (구 진관외동)
	世宗大王	04.08	양력 고정	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 영릉(英陵)
	宗廟大祭	05.03	5월 첫째	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종묘

小宗會 主管 享祀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소
五	安孝公(諱:溫)	04.05	한식	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04.06	03.14	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良惠公(諱:石寓)	04.12	03.20	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예버랜드로562번길 159
	恭肅公(諱:會)	04.09	양력 고정	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237

각종 찬조현황(2019. 11. 26 ~ 2020. 1. 31)

■ 각 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규선
(종보편집위원장)

장학찬조
300만원
2019년9월



심재봉
(사북시정공파청원총회 고문)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9월



이경공종회
(회장 심재창)

장학찬조
300만원
2019년10월



곡산공종회
(회장 심재갑)

장학찬조
300만원
2019년12월



진천월촌총회
(회장 심상영)

중보·장학찬조
60만원
2019년12월



효창공종회
(회장 심상후)

중보찬조
50만원
2019년12월



이용란
(예천.구 심규오)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심재규
(대중회 부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광주청광회
(회장 심재규)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심무석
(서울)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1월



심대민
(서울)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1월



철원봉익공종회
(회장 심상국)

중보찬조
50만원
2020년1월



정기공종회
(회장 심석문)

중보찬조
50만원
2020년1월

임원회비

이사회비 ('18년도)	5만원	정수(함열), 동출(강원), 웅섭(서울, 만인(부산))
부회장회비 ('19년도)	30만원	무섭(경기), 현근(대전), 대섭(전남), 재규(광주), 규화(울산), 장식(서울), 석문(경기), 재덕(안동), 정구(인천)
이사회비 ('19년도)	5만원	상은(김포), 상학(충북), 규실(마산), 점보(마산), 상영(충북), 은섭(충북), 재욱(충북), 영종(충남), 수일(전주), 규성(인천), 상학(서울), 수영(전주), 정수(함열), 창보(양평), 광섭(청송), 재덕(부산), 준구(인천), 민섭(광주), 하섭(강원), 재영(충남), 정(광주), 광섭(서울), 의석(경북), 재숙(경북), 재균(광주), 윤택(충남), 재화(경남), 상호(안양), 재혁(청주), 우홍(강릉), 재윤(서울), 동출(강원), 일섭(전남), 재덕(서울), 상조(서초), 재안(서울), 상철(전북), 재광(경남), 진식(광주), 재신(서울), 웅섭(서울), 재만(경기), 광보(용인), 양섭(충북), 익섭(서울), 만인(부산), 재선(인천), 형찬(경기), 영구(울산), 용구(울산), 흥주(경기), 현주(경기)
이사회비 ('20년도)	5만원	훈(대구), 재구(삼척), 규성(인천), 상학(서울), 정(광주), 우홍(강릉), 상철(부산), 진식(광주), 석용(경기), 응하(경기), 석희(경기), 상경(서울), 현주(경기)

중보찬조

100만원	이세기	5만원	경보(경북), 광보(서울), 기택(논산), 윤택(서울), 재근(예천), 재오(부산), 재용(전주), 종렬(합천), 종방(전안), 준섭(대구), 형석(안성), 형식(광명), 창후(군산), 상학(서울), 상경(서울)
60만원	영신상사	3만원	규중(구미), 규성(인천)
50만원	효창공종회(회장 상후), 정기공종회(회장 석문), 철원봉익공종회(회장 상국), 진천월촌총회(회장 상영)	2만원	상중(전북), 상춘(울산), 상훈(김포), 웅섭(강원), 재남(강남), 재홍
30만원	상진(화성), 좌승지공임피중중(회장 수영)	지로중보찬조	5,774,500원
20만원	상덕(경남), 용갑(광양), 재일(하동), 정입(대전), 지평공종회(회장 행진), 진식(경남), 상영(전북)		

장학찬조

100만원	규오(예천), 재규(부회장), 광주청광회(회장 재규), 무석(서울), 대민(서울)
30만원	진천월촌총회(회장 상영)
20만원	오택, 은석, 규정, 상영, 임성호

안효공 배위 삼한국대부인 순흥안씨 기신제

12월 19일(음11월23일) 19:00 수원 이의동 안효공 재각에서 일가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忌祭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 초헌 : 무섭(안효공종회 회장)
- 아헌 : 상열(관관공종회 회장)
- 종헌 : 석문(정이공어비리종회 회장)
- 대축 : 흥섭(효창공종회 고문)
- 집례 : 원섭(안효공종회 총무이사)

5세조 안효공(휘: 온) 기제 (5世祖 安孝公(諱: 溫) 忌祭)

지난 1월 18일(음 12월24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안효공 재각에서 전국 각지의 후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기제를 봉행 하였다.

- 초헌관: 무섭(안효공종회 회장)
- 아헌관: 상직(안효공종회 부회장)
- 종헌관: 석문(정이공어비리종회 회장)
- 축 관: 흥섭(공숙공종회 고문)
- 집례: 봉섭(안효공종회 총무)



심재욱 일가의 수필집 <청솔가지> 발간

1940년 경남 하동 출신의 공직생활을 했던 심재욱 일가는 퇴직 후에 문학수업을 시작하였고 어렵사리 신인상에 당선,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그의 작품은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순명의 가난 속에 켜켜이 때 묻고 찌들은 촌사람의 삶을 녹여낸 글들로 수필집이 되었다.

<落落長松 곧은 節介> 출간



대중회 부회장 겸 약은공 종회장이신 심동섭 일가께서 8번째 문집인 『落落長松 곧은 節介』를 출간하였다. 동섭 일가는 진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명망을 갖고 있는 유학자로 청송 심문의 위상을 음양

으로 빛내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는 전통 사상의 계승과 올곧은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글과 유려한 문체의 비문(碑文),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느낀 단상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전방부대(6사단) 장병위문

지난 1월13일 심대평 대종회장과 상임이사 및 포천의 친인척 30여명은 심진선 일가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6사단 전방부대를 위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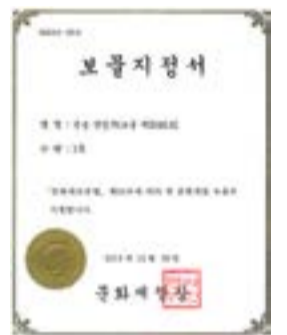
혹한의 추위 속에 불철주야 최전방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전방역사관, 평화전망대, 제2땅굴 등을 견학하며 안보교육도 받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청송 찬경루

대전사 보광전(제1570호), 보광사 극락전(제1840호)에 이은 청송군 내 세 번째 보물(제2049호) 지정

청송군 소헌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심문(沈門)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이기도 한 찬경루가 지난 12월 30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2049호)로 지정되었다.



공지사항

- 2019년분 대중회 임원회비가 미납되신 임원께서는 2월2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30만원, 감사: 20만원, 이사: 5만원

▣ 증보 140호 정정
6면 최각규 → 최규하

효창공종회 임원개선

- 회장 : 상후 / - 부회장 : 성래, 원섭
- 고문 : 상호, 洪燮, 흥섭
- 총무 : 재홍
- 감사 : 원섭, 석규

5차·2단소 유사 및 관장



청송유사 상복



청송유사 길택



덕천유사 광섭



함열유사 정수



철원유사 상국



안성유사 철유



청주유사 상호



청송관장 재홍



청주관장 재훈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부금 ★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농협 : 301-0256-8973-11

송금안내

임원회비·증보찬조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107-5873-71